

중국어 말하기 교육을 위한 몇 가지 화용론적 제언

- 교재 속 지시화행 분석을 중심으로*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교재 속 지시화행과 ‘지시—대응’ 인접쌍을 분석하고 그것이 주장이나 설득 등의 사회행위 성취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고찰함으로써 외국어 교육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¹⁾

먼저 아래 예를 살펴보자.

(1) 1.9.2(제프가 왕핑에게 전화를 건다)²⁾

杰 夫: 請問, 王平在嗎?

王 平: 我就是。

.....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본고에서의 ‘지시’는 화행으로서의 지시(directives)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고는 ‘지시’와 ‘지시화행’을 용어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2) 예문에 표기된 숫자는 ‘권’, ‘과’, ‘단락’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1.9.2’는 『漢語口語』 ‘제1권 제9과 두 번째 대화단락’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하다.

예(1)에서 ‘王平在嗎’는 질문일까? 전화대화에서 송화자가 뎀 첫마디가 의문문이라는 이유로 ‘질문’의 힘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王平在嗎’는 ‘요청’의 힘을 갖는다. 그렇다면 ‘王平在嗎’를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첫째, 杰夫가 ‘王平在嗎’를 발화한 목적은 王平의 소재에 대한 정보요구에 있는 게 아니라 ‘王平과 통화하고 싶다. 그러니 바꿔달라’는 요청에 있다. 설령 수화자가 王平이 아니더라도 그가 옆에 있다면 수화자는 ‘在’라는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等等’하며 바꿔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보자. 둘째, ‘王平在’라는 명제는 전화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수화자가 ‘미래에 제공해주어야 할 행위’라는 점이다. 이 점은 지시화행(Searle 1979:14)의 성립조건 중 하나로서, 수화자가 통화자와 일치할 경우에는 수화기를 드는 행위자체가 그에 속할 것이며, 불일치할 경우에는 통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에 속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2) 3.15.2(집 안에서)

妻 子: 快看, 〈今晚有約〉開始了。

丈 夫: 都結婚了, 還對這種節目感興趣?

妻 子: 結婚了就不能看這個節目了? 我們那兒還有好幾個姑娘沒有對象呢。

丈 夫: 用你幫忙嗎?

妻 子: 看, 這個小伙子真帥, 一米八二, 還是工程師呢! 又愛游泳, 又愛打乒乓球, 多好的條件啊。

丈 夫: 快給他寫信吧。

妻 子: 開甚麼玩笑? 不過, 如果我還沒有結婚 ……

……

예(2)의 ‘快給他寫信吧’는 명령문이다. ‘快給他寫信吧’는, 명령문은 요구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에 부합할까? 예(2)는 TV시청의 맥락이다. 프로그램 시청 중 그에 심취된 妻子를 보고 丈夫가 ‘快給他寫信吧’라고 하고 있는데, 맥락을 제외할 경우 이 예는 명령문과 요구하기라는 형식

과 기능 간의 일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맥락에서 ‘快給他寫信吧’는 丈夫가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시화행의 심리상태와도 불일치하고 TV출연자에 대한 ‘寫信’이 ‘妻子的 미래 행위’가 아니므로 지시화행의 명제내용을 어긴다는 점에서도 적정조건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快給他寫信吧’에 대한 해석은 추론을 필요로 하는데, 妻子的 TV시청 목적이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는 점, ‘寫信’의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점, 그리고 妻子에 대해 丈夫의 ‘싫은’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快給他寫信吧’는 지시화행이 아닌 표현행위(expressives)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 두 예는 언어의 형식과 기능 간의 불일치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 이와 같은 암시는, 중국어 교육으로 하여금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사용 중의 언어’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한다. 그동안 중국어 교육은 언어 자체에 대한 교육에 힘을 쏟아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닌 ‘하는’ 데 있는 이상 교수자의 고민도 이제는 어떻게 ‘잘 가르칠까’에서 어떻게 ‘하게 할까’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화용기반의 언어 교육은, 앞서 본 예처럼, 시·공간과 인간관계, 의도와 추론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형식과 기능 간의 대응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로, 그것의 중요성을 줄곧 인식해왔음에도, 의도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화용론은 직시, 응집성, 추론, 전체, 화행, 대화협력, 공손성 등 맥락과 언어사용의 이해에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개념상의 중요도를 가린다면 그 중심은 화행(speech act)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기 개념들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닌 관찰 중심에 따른 분류이겠지만, 그럼에도 화행이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화행에 대한 해석과정이 상기 개념들을 모두 필요로 하거나 인접쌍(adjacency pairs), 선호구조(preference) 등 대화 분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행위연속체 구성에도 화행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화행 중에서도 지시화행(directives)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모든 언어행위는 타인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본적인 이유에서 출발한다. 발화한다는 자체가 곧 나의 일방적인 발화가 아닌 남이

나의 얘기를 경청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에 바탕한다고 보는데 지시화행은, 이를 넘어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타인의 직접적인 행동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행위 성취를 위한 중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시화행은 기타 다른 화행들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이 될까. Searle(1979)은 보편적 화행의 유형을 단언(assertives), 지시(directives), 언약(commissives), 표현(expressives), 선언(declarations)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지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Searle 1979:13~14)

- 1) 발화수반 포인트(the illocutionary point): 청자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 하기 위한 화자의 시도
- 2) 세계와 언어 간의 지향성(The direction of fit): 언어에 세상을 맞추기
- 3) 화자의 심리상태(the sincerity condition): 바람(희망, 욕망)
- 4) 명제내용(The propositional content): 청자 H는 미래의 어떤 행위 A를 한다
- 5) 관련동사 부류: ask, order, command, request, beg, plead, pray, entreat, invite, permit, advise, dare, defy and challenge 등

상기 요인 중에서 1)번에서 3)번까지가 화행유형의 주요 분류기준이 되는데,(박용익 2001:83) Searle(1979:2~5)에 따르면 1)번 발화수반 포인트는 의사소통 목적으로서, 진술이라면 ‘표현’에, 약속이라면 화자의 ‘의무 이행’에 그 목적이 있다. 2)번 세계와 언어 간의 지향성은 발화된 명제 내용을 따라 세계가 맞춰지는지 세계의 상황에 언어가 맞춰지는지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약속은 발화된 이후 화자의 행동이 그에 맞춰진다는 점에서 전자에 해당하고 단언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해당한다. 3)번 화자의 심리상태는 발화를 하게 된 동기로서 단언, 설명 등은 ‘믿음’이, 약속이나 위협 등은 ‘의도’가, 사과 등은 ‘후회’가 그에 속한다.

본고는 상기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화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시도하는가, 언어에 세계가 맞춰지고 있는가, 화자는 청자가 행하길 바라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자료에 출현하는 지시화행을 선별하였다. 이

에 본고에서는 ‘지시’를, 상기 관련동사의 부류에서도 볼 수 있듯, 요구, 주문, 명령, 요청, 충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요구, 충고, 제안 등 지시화행의 하위 부류명을 따로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다만 ‘질문(question)’이 지시화행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Searle (1979:14)과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 이유는 질문과 지시가 모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동 기반을 갖고 있으나 질문은 ‘지식이나 정보와 관련된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지시화행은 ‘실제적 행동 그 자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별되기 때문이다.(박용익 2003:104) 이에 본고는 자료분석에 있어 질문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는 『漢語口語』라는 중국어 말하기 교재에서 분석자료를 취하였다. 『漢語口語』는 총 6권이 출간되어 있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제3권까지를 분석의 범위로 삼았다. 교재를 분석의 범위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료수집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교재 대화문에 대한 화용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화문만을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제작에만,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대입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대화문 자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것의 해석방법에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특정 화행을 예로 들어 교재 대화문을 분석함으로써 교재 및 수업으로 화행개념의 대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 방법의 보완을 꾀하는 데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강소영 2004; 김정은 2006, 2007)는 화행을 연속체 개념이 아닌 문장 단위의 개념으로 파악했던 경향이 있고 또 화행으로 무엇을 성취하는가 보다는 그것의 유형 분류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칫 맥락과 해석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할 우려가 큰데, 특히 DCT(Discourse Completion Test) 조사를 통한 언어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원하는 화행만 수집 가능하고 또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으로 인해 계량화가 쉽지만, 화행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선·후 화행 간 연계성 관찰에는 소홀함으로써 국소적인 관찰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교재를 분석할 것인데 그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지만 교재가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결과는 현장 수업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론과 결론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본론에서는 먼저, 화행의 해석에서 맥락이 갖는 중요성을 지시화행으로써 제기한다. 그리고 지시와 그것의 대응 행위—수용과 거절³⁾—를 행위연속체 구조 속에서 관찰하고 화행의 실현 과정에서 보이는 공손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연속된 지시행위쌍이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성취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외국어 교육에 대해 화용론에 기초한 제언을 제시한다.

2. 본론

1) 지시화행, 맥락, 해석

의미는 특정 상황 속에서 사용 중에 있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화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형식이 어느 상황에서 누구와 있을 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다양한 경우의 수로만 존재하는 의미와 형식 간의 불일치에 대해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화자가 발화으로써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세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등에 주목함으로써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관념 속의 언어에서 일상 속의 언어로 실제화 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발화문의 언표내적 힘, 즉 화행의 지위 부여는 발화 상황을 전제로 한다.

-
- 3) 지시화행에 대한 대응행위로는 엄격히 말해 수용, 거절, 무반응으로 나뉘 수 있다. 흔히 상대에 대한 무반응을 거절로 간주하지만, 무반응은 행위로서의 무반응과 언어적 무반응으로 나뉘어서 불필요가 있다. 행위로서의 무반응은 상대의 지시화행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명시적인 거절로 받아들여지지만 지시화행에 대한 언어적 무반응은 그것이 의례적으로 불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숙사로 찾아온 친구에게 행한 ‘進來’는 들어가는 행위가 곧 수용을 의미하므로 굳이 대응어를 부가할 필요가 없다. 또 집으로 들어온 손님에게 행한 ‘講坐’ 역시 그와 같다. 따라서 지시화행에 대한 반응이 수용인가 거절인가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직접적인(신체적)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뒤를 잇는 발화와 행위가 어떠한 결과로 실현되는지 관찰을 요구한다.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해석은 종종 상이한 시각차를 불러온다. 따라서 발화가 어느 맥락에서 수행되었는가는 그것의 기능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 2.7.1(식당에서)

安 妮: 杰夫, 快到周末了, 打算怎麼過?

杰 夫: 我想做一次小小的旅行。

.....

安 妮: 你一個人去嗎?

杰 夫: 我約了王平, 我們倆一起去。

.....

예(3)에서 질문 ‘你一個人去嗎’에 호응하는 대답 ‘我約了王平’에 뒤이어 출현한 ‘我們倆一起去’는 ‘진술’로써 기능한다. 여기서 ‘我們’은 배척의 ‘我們’(exclusive ‘我們’)으로서 상대하고 있는 安妮를 제외한, 杰夫와 王平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황을 바꿔, 업무에 익숙치 않은 신입사원에게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갖고 와야 할 때 ‘我們倆一起去’는 동일 행동을 촉구하는 지시로써 기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我們’은 포괄식 ‘我們’(inclusive ‘我們’)으로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화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듯 똑같은 형식임에도 어느 상황에서 어느 화행의 뒤를 잇는지에 따라 상이한 화행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 발화상황에 민감한 직시어도 그 포괄범주를 달리할 수 있다.

(4) 2.8.3(옷가게에서)

.....

杰 夫: 不错。(對售貨員)小姐, 我想看一下那件衣服, 可以試試嗎?

售貨員: 可以。那邊有鏡子。

杰 夫: (試衣服)又瘦又短, 太小了。

李文靜: 不是衣服小, 是你的個子太高了。小姐, 有沒有大號

的?

售貨員: (找了半天找出一件)這是最大的, 先生, 請再試一下。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문장형식을 가리키는 명칭은 이미 그것의 주요 기능이 무엇일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각각 ‘단언’, ‘질문’, ‘요청’이 그것인데, 이처럼 형식과 기능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Levinson(1983[이익환 등 1992:316])은 직접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LFH)이라고 하였다.⁴⁾ 하지만 이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가 실제로는 많지 않다.⁵⁾ 이는 예(4)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요구’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 평서문—‘我想看一下那件衣服’, 의문문—‘有没有大號的’, 명령문—‘請再試一下’—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직접화행에 대한 관찰을 넘어 간접화행에 대한 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예(4)에서 평서문과 의문문이 각각 어떻게 지시화행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맥락에 대해 살펴보자. 주어진 상황, 즉 공간과 인적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으레 수행되는 행위들은 특정 화행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의류매장이라는 공간은 구매를 하는 곳이다. 구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갖는 공동의 목적이다. 그러나 매장에서 구매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구매 전후로 그리고 구매 자체도 여러 사회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손님 입장과 점원의 환대가 있고 둘러보기와 시복이 있으며 정산과 퇴장 및 점원의 배웅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손님과 점원에 의한 말에 의해서, 각 대화별 언어사례(speech event)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의류매장에서 성취하는 행위가 이처럼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대화 대부분이 위의 예처럼 둘러보기와 시복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그것이 ‘구매’라는 본질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수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둘러보

4) 이익환 등(1992:316)은 이를 일컬어 ‘글자—그대로의—말함—가설’이라고 번역했는데 현재는 ‘직접화행 가설’로 자주 일컬어지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5) Huang(2006[이혜운 2009:139])은 직접화행 가설의 문제점으로서, 첫째, 수행동사와 화행 간에 직접적인 연결조차도 깨지는 화행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둘째, 대부분의 용법들이 간접화행으로 실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와 시복이라는 언어사례는 ‘這件怎麼樣’과 같은 손님 간의 평가와 ‘試試’를 둘러싼 손님과 점원 간의 대화로 구성되는데, 이 틀 속에서, 손님—점원 간 주종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발화는 모두 그 언표내적 힘이 구매라는 목적에 맞춰 해석되도록 유도한다.

예(4)에서 ‘我想看一下那件衣服’, ‘有沒有大號的’는 모두 그에 앞서 ‘小姐’라는 호칭어를 부가하는데, 杰夫는 매장이라는 공간에서 ‘小姐’를 불러놓고 ‘想看’으로써 자신의 바람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 것이며 ‘有沒有’로써 매점의 재고 유무를 묻고자 한 것도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에는 추론이 요구되는데, ‘구매’라는 목적 하에 손님과 점원이 매장에 존재하는 이유와 쌍방 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점원은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등을 고려할 때 ‘想看’과 ‘有沒有’가 모두 지시화행으로 추론되어야 적절할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售貨員의 행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想看’이후의 행위는 명시적이지 않으나, ‘有沒有’이후의 후행 행위는 ‘有’나 ‘沒有’의 대응발화가 아닌 직접적인 행동 ‘找了半天找出一件’이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拿下’라는 직접적인 행위 관련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想看’을 이용한 평서문이나 ‘有沒有’를 이용한 의문문을 사용하더라도 杰夫의 발화가 어떻게 지시화행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好’, ‘等等’ 등의 대응발화가 굳이 없어도 지시화행에 대한 점원의 반응은 왜 모두 잠재적인 ‘수용’행위로 해석되는지는, 특정한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인적 관계를 먼저 고찰함으로써 설명가능하다.

(5) 1.13.3(교내 우체국에서)

麗 莎: 我買兩個信封。

營業員: 一個三毛, 兩個六毛。

……

麗 莎: 給你十塊。

營業員: 這是三張兩塊的, 兩張八毛的郵票, 還有兩個信封, 一共八塊二。找你一塊八。

예(5)는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이에 대한 해석도, 예(4)에서 처

럼, 맥락이 발화의 해석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5)에서 ‘我買兩個信封’이 단순 진술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시화행으로 해석 가능한 이유는 그 행위가 처한 공간에서 중심적인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며 또 손님이라는 역할이, 麗莎가 한 발화를 모두 발송이라는 목적에 준해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 뒤를 잇는 점원의 후행발화 ‘一個三毛, 兩個六毛’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편지봉투를 건내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수용’ 행위가 된다. 흥미로운 점은, ‘一個三毛, 兩個六毛’가 지불 행위를 직접 유발한다는 점에서 麗莎에 대한 지시화행으로도 해석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점원의 ‘수용’을 전제로 가능한데, ‘매매’라는 행위목적은 공유하고 있는 두 화자 간에는 우체국을 배경으로 최소한의 발화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我買兩個信封’이란 진술은 ‘給我信封’이란 요구로, ‘一個三毛, 兩個六毛’란 진술도 ‘是一個三毛, 兩個六毛, 所以給錢’이란 요구로 해석가능하다. 따라서 후행행위는 곧바로 ‘給你十块’로 이어지며 이에 점원은 ‘一共八块二° 找你一块八’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문장형식과 언표내적 행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발화문	발화수반력
G: 買信封。	요구1(給信封!)
H: 是六毛。	수용1(=요구2: 給六毛!)
.....	
G: 給十块。	(=수용2)
H: 是八块二。	진술1(給信封)

2) ‘지시—대응’ 인접쌍

화행이론은 해당 발화가 어떠한 언표내적 힘을 갖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 힘에 대한 해석은 앞, 뒤 화행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좀 더 정확할 수 있다. 하나의 화행은 선행발화에 대한 대응행위인 동시에 후행발화에 대한 시발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행의 해석에는 화자 간

순차적으로 진행된 결과로서의 연속체 개념이 유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접쌍이다. 인접쌍이란 두 명의 개별 화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화된 행위 대응쌍을 말한다.⁶⁾ ‘요구’화행은 흔히 ‘수용’과 ‘거절’이라는 두 화행과 호응을 이루어 인접쌍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2.10.3.1(기숙사에서)

.....

李文靜: 下個學期你還在這兒學習嗎?

安 妮: 我打算延長半年。你呢, 放假去哪兒?

李文靜: 回老家過春節。

安 妮: 放假以前, 同學們要開個晚會, 你也來吧。

李文靜: 好啊。

예(6)에서 두 화자는 방학계획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서 安妮는 방학 전에 송년회가 있다며 李文靜을 ‘你也來吧’로써 초대하고 李文靜은 ‘好啊’로써 수용하며 ‘지시—수용’ 인접쌍을 구성하고 있다. 예(6)은 말 그대로 ‘인접’된 쌍의 예를 보여주는데, 사실 여기서 ‘인접’의 개념은 쉽 없이 곧바로 이어진다는 의미보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더라도 선행화자에 상응하는 반응이 근자에 출현할 것이라는, 좀 더 유연한 개념의 인접을 의미한다.(Levinson 1983[이익환 등 1992:369]) 따라서 인접쌍은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인접쌍이 삽입되어 확대될 수 있다.

6) Schegloff & Sacks(1973:295~296)는 인접쌍의 구성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박찬욱(2010:287)재인용]

(1) 인접쌍 구성의 기본 특징:

1-1) 두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1-2) 두 발화는 인접해 있다.

1-3) 두 발화는 각기 다른 화자에 의해 생산된다.

1-4) 두 발화가 하나의 유형화된 쌍(pair type)을 구성한다.

1-5) 유형화된 쌍은 두 화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2) 인접쌍 조직의 기본 규칙: 선행화자가 (유형화된)행위쌍의 일부를 생산하고 추이적 정지점에서 발화를 멈추면 후행화자는 그 행위쌍의 나머지 일부를 생산해야 한다.

(7) 2.2.1~2(식당에서 애니, 체프가 음식을 주문한다)

.....

小姐: 你們吃點兒甚麼?

安妮: 我看不懂你們的菜單, 不知道又酸又甜的有甚麼菜。

小姐: 有古老肉, 糖醋魚, 西紅柿炒雞蛋甚麼的。

麗莎: 古老肉是豬肉做的嗎?

小姐: 是。

安妮: 我不吃豬肉, 來個西紅柿炒雞蛋怎麼樣?

.....

예(7)에서 ‘你們吃點兒甚麼’는 小姐가 손님의 기호를 묻기 위해 발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구로 해석된다. 이 때 인접한 행위는 ‘我看不懂你們的菜單’이 아니라 두 개의 ‘질문—대답’쌍 ‘我看不懂你們的菜單……有古老肉、糖醋魚、……’, ‘古老肉是豬肉做的嗎?—是’이 삽입된 후에 출현하는 ‘來個西紅柿炒雞蛋’이 된다. 삽입된 두 ‘질문—대답’쌍은 각각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넘어, ‘你們吃點兒甚麼—來個西紅柿炒雞蛋’이라는 좀 더 큰 연속체 속에서 요구의 대응—來個西紅柿炒雞蛋—을 위한 ‘자료수집’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듯, 일개 발화문에 대한 해석은 발화문 자체가 갖는 독립된 화행으로서의 개념보다 앞, 뒤로 인접하여 대응하고 있는 행위쌍과의 연계 속에서 올바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 같이 ‘질문—대답’ 인접쌍이 다른 화행을 위해 기능하듯이 ‘지시—대응’ 인접쌍도 기타 행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자.

(8) 2.6.2(과의 시간에)

.....

安妮: 課本上有很多漢字我不認識, 更不會寫, 怎麼辦?

王平: 我有一個好辦法。

安妮: 甚麼辦法, 快說!

王平: 你別着急。聽我說, 你跟我一起練習書法吧。

安妮: 書法? 太難了, 我怕學不會。

王 平: 慢慢學, 只要多看多寫, 就一定能學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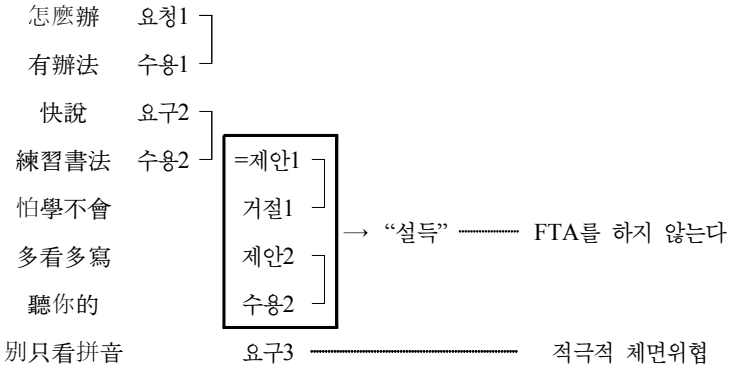
安 妮: 好, 聽你的。

王 平: 還有, 你讀課文的時候, 別只看拼音。

예(8)은 중국어 공부에 대한 安妮의 애로점과 관련한 대화이다. ‘怎麼辦’부터 시작하여, 순차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安妮: 1)怎麼辦? 說辦法!
 ↓ ↗ ↓ ↗ ↓ ↗
 王平: 有辦法 2)練書法! 3)怕學不會 4)慢慢學, 多看多寫! 5)好 6)還別看拼音!

安妮의 ‘怎麼辦’은 자신을 향한 자문으로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다. 문제一不識字, 不會寫字一를 스스로 풀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부탁한다는 요청의 화행一提出辦法一으로 이해해야 옳다. 이에 대해 王平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수용’으로서 요구된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방법을 말해준다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나머지 하나로서, ‘거절’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써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고 ‘자신은 모른다’든지 실사 알고 있더라도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무대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安妮의 ‘怎麼辦’에 대해 王平이 ‘수용’의 반응을 보였더라도, 辦法가 ‘있다’는 존재만을 말할 뿐 정작 辦法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면 ‘수용’에 합당한 발화가 아님을 의미한다. 예(8)에서 王平의 반응一我有一個好辦法一에 安妮가 ‘甚麼辦法, 快說’로써 재요구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安妮의 재요구에 부응하여, 王平은 제안이라는 지시화행으로써 辦法를 제시하고 있는데 安妮는 심리적인 부분에 기인하여 이를 ‘거절’하고, 이에 다시, 王平이 심리적 요인에 대한 솔루션一慢慢學, 多看多寫一을 제안하자 安妮는 결국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王平은 安妮의 ‘수용’이라는 분위기에 힘입어, 선행요구와는 다르게, 安妮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를 덧붙임으로써 끝을 맺는다. 상기 제시했던 행위의 순차성은 다음과 같은 인접쌍의 구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인접쌍을 바탕으로 각각의 화행을 묶을 경우, 요구를 기반으로 한 인접쌍이 상위화행인 ‘설득’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안1’은 ‘거절1’에 의해 잠시 부정되지만 ‘거절1’에 대한 청자의 보상(제안2)이 이어지자 ‘수용2’의 결과로써 결국 받아들여지는데, 이와 같은 조율 과정은 설득이라는 상호작용 결과를 낳으며 ‘지시—수용/거절’쌍이 거시적 행위 수행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설득의 과정이 완료됨으로써, 분위기에 힘입어, 요구화행으로 인해 쉽게 범할 수 있는 체면위협행위(FTA)가 ‘체면위협행위를 하지 않는다’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한다’로 바뀌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3) ‘지시—대응’과 공손성

(1) 지시와 공손성

Brown & Levinson(1987:61)은 Goffman이 제시한 ‘체면’의 개념을 토대로,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인에게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각각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정의하고, 화행에 따른 체면위협행위를 공손성(politeness)이라는 개념을 빌어 설명하였다.⁷⁾ 지

시화행은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타인이 해주길(또는 타인이 같이 해주길) 바란다’는 의도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에 지시화행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가할 수밖에 없는데,(Yan Huang 2006[이해운 2009:145~146]) 그와 같은 이유로 지시화행은 타인에 대한 체면위협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자주 수반하곤 한다.

지시화행은 항상 상대방의 ‘수용’행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절’에 대비한 화자 자신의 체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요구 시에는 화자의 의도가 청자의 행위로 최대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거절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게끔 여러 장치들을 고안해야 하는데, 예비요청(pre-request)과 담화표지, 부가의문문 등이 그 예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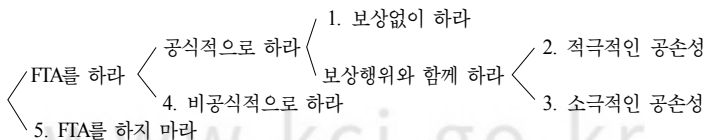
(9) 2.3.1(왕핑의 기숙사에서)

安 妮: 你最近忙嗎?
 王 平: 還可以。有甚麼事嗎?
 安 妮: 我想請你做我的輔導, 好嗎?
 王 平: 好啊! 你想讓我輔導甚麼?

.....

예비요청은 본격적인 요청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근황이나 시간적 여건 등을 물음으로써 요청 자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의문문 형식의 ‘질문’을 가리킨다.(Levinson 1983[이익환 등 1992:449]) 예(9)에서 본격적인 요청은 ‘請你做我的輔導’이다. 이에 앞서 安妮는 ‘你最近忙嗎—還可以’라는 인접쌍 구성을 유도함으로써 거절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고 ‘請你做我的輔導’를 수행하고 있는데, 만일 거절의 가능성이 클

7) Brown and Levinson(1987:69)는 체면 위협 행위에 따른 보상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경우라면 그 자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수행 시 거절로 인해 맞게 될 화자 자신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반대로 예비요청은, 본격적인 요구사항이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지 미리 문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자의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을 고려하는 동시에 뒤이어 나올 화행에 청자로 하여금 대비토록 함으로써 대화 시 생길 수 있는 부담 요소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예비요청을 구성하는 ‘질문—대답’쌍에서의 ‘대답’은 흔히 ‘有甚麼事嗎’ 등으로 끝난다는 것인데, 이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예비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王平은 ‘你最近忙嗎’를, 근황을 묻는 안부로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이는 ‘有甚麼事嗎’의 발화 동기를 제공한다. 둘째, ‘有甚麼事嗎’는 예비요청과 요청 간의 경계 기능을 한다. 예비요청을 구성하는 ‘你最近忙嗎—還可以’쌍과 요청을 시작하는 ‘我想請你做我的輔導’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安妮의 의도를 듣고자 한다는 王平의 의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부드럽게 본행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셋째, ‘有甚麼事嗎’는 ‘질문’이 아닌 ‘有事就說’의 ‘지시’이다. 우선 형식면에서, ‘有甚麼事嗎’는 ‘有…嗎’의 형식을 띠며 ‘있다’ 또는 ‘없다’가 그에 상응하는 대답이어야 한다. 하지만 ‘있’을 경우 화자는 ‘有’로 답하지 않고 ‘甚麼事’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발화할 것이다. 그에 반해 ‘없’을 경우 화자는 ‘沒有’로 대답할 수 있지만 이 때는 ‘있을 경우’의 반응과 반응 간 대칭을 구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여기서의 ‘沒有’는 ‘沒有甚麼事’가 아니라 요청에 대한 표현의사의 철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有甚麼事嗎’는 ‘질문’이라는 정보의 요구에 기여하기보다는 ‘요구’라는 상대의 행위 촉구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⁸⁾

상대방의 여건을 확인하고 수행한 화행이기는 하나, 安妮와 王平이 친구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과외 선생님으로의 일방적인 ‘고용’의사 표현은 자칫

8) Levinson(1983[이익환 등 1992:455])에서는 선호 경향 순으로 예비요청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9)는 그 중 ‘(iii) 최소 선호’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i) 최대 선호: 예비요청—비명시적 요청에 대한 반응

(ii) 다음 선호: 예비요청—제의—제의 수락

(iii) 최소 선호: 예비요청—진행 독려—요청—응답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되는데, ‘請你做我的輔導’ 앞, 뒤로 제시된 담화표지 ‘我想’과 부가의문문 ‘好嗎’가 그것이다. 安妮는 우선 ‘我想’을 이용하여 상기 요구가 나만의 생각임을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존중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요구 뒤로, ‘好嗎’를 이용하여 요구화행의 강요 정도를 낮추는 동시에 형식적으로라도 王平의 의사를 재차 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好啊’라는 ‘수용’의 반응을 얻고 있다.

(10) 1.13.1(숙소 문 앞에서)

安 妮: 杰夫, 你去哪兒?

杰 夫: 我去圖書館。

安 妮: 你想借甚麼書?

杰 夫: 我不借書, 我是去上網。

安 妮: 圖書館可以上網嗎? 我想發一個電子郵件。

杰 夫: 要是你現在有時間, 就和我一起去吧。

安 妮: 好啊! 圖書館幾點關門?

杰 夫: 晚上十點才關門呢。

예(10)에서 ‘就和我一起去吧’는 ‘你和我去’라는 명제내용을 갖는 제안이다. 이 때 杰夫는 가정문으로써 상대방의 수용가능 상황—적극적 체면을 고려한다면 ‘如果你有時間的話’ 등을 이용하고 소극적 체면을 고려한다면 ‘要是你方便的話’ 등을 이용할 수 있다—을 가정하기도 하고 ‘吧’ 또는 ‘呀’ 등의 어기조사로써 강요의 정도를 낮추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 제안은, 도서관을 가는 자신의 목적만을 고려하여 ‘억지로’ 데리고 간다는,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체면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자 ‘要是你現在有時間, 就…吧’라는 조건의 형식으로 ‘和我一起去’의 형식이 갖는 강요의 정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한 공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2) 거절과 공손성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지시화행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맞춰져 있었으나 지시화행의 성공여부가 그 뒤를 잇는 화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수용과 거절 양상에 대한 관찰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시화행에 대한 ‘수용’은 화자의 바람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부드러운 진행을 유도한다. 그러나 ‘거절’은 화자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에게는 의도 전달의 실패를 또 청자에게는 화자에 대한 체면위협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 다시, 화자에게는 또 다른 지시전략을, 청자에게는 체면보상의 전략을 요구한다. 이처럼 ‘거절’은 그 자체로서도 그리고 결과로서도 쌍방에 부담을 주고 보상행위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수용’보다 더 많은 관찰이 요구된다. 거절의 방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거절과 간접적인 거절로 나뉠 수 있으나 체면위협의 보상 측면에서는 일련의 연속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직접성에서 간접성으로, 보상이 없는 전략에서 보상이 부여되는 전략 순으로 제시될 것이다.

(11) 2.12.2(과일 가게에서)

……

杰 夫: ……，小姐，來兩公斤。
 售貨員: 好。還要別的嗎?再買點兒橘子吧?
 杰 夫: 不要了。

예(11)에서 售貨員은 ‘再買點兒橘子吧’로 추가구매를 제안하지만 청자는 ‘不要了’로써 직접적인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가 직접적인 거절임에도 뒤따르는 부가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보상없이 행한, 체면위협정도가 가장 높은 거절이라고 볼 수 있다.

(12) 2.15.1(기숙사에서)

……

王 平: 怎麼丟的?你是不是忘了鎖車了?
 杰 夫: 沒有啊。我鎖得好好兒的,你看, 鑰匙還在我手裏呢。

肯定是被人偷了。

王 平: 別着急, 咱們下樓再好好兒找找。

杰 夫: 不用了, 我都找過幾遍了, 連個影子也沒有, 看來肯定是丟了。

王 平: “舊的不去, 新的不來”, 再買一輛吧。

예(12)에서 자전거를 잃어버린 杰夫에게 王平은 두 개의 지시화행 ‘別着急’, ‘咱們下樓再好好兒找找’로 도움을 주려 하였다. 그러나 杰夫는 ‘不用了’로 직접적인 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에 있어 예(11)의 ‘不要了’보다 덜 한 이유는 뒤따르는 이유 ‘我都找過幾遍了, 連個影子也沒有’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이유’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 거절의 근거를 제공한다. 王平의 제안에 대한 거절이 감정적 대응으로서의 거절이 아니라 ‘사실’에 기댄 거절임을 보임으로써 직접성의 정도를 낮춘다. 둘째, ‘咱們下樓再好好兒找找’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친구를 위해 보여준 위로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보상이 없는 직접적인 거절은 자칫 王平의 체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데, 후행하는 ‘이유’는 거절이 호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무의미한 자전거 찾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王平의 적극적인 체면 위협을 최소화한다.

(13) 3.11.3(애니와 리사의 대화)

安 妮: 我的頭髮越來越少了, 得去燙一下。

麗 莎: 燙甚麼, 還是直發自然。剪成短發吧, 短發精神。

安 妮: 不, 我不想剪短, 只想燙一下。 燙了以後, 頭髮會顯得多些。

……

부정의 반복은 단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예(13)에서 麗莎는 ‘短發精神’이라는 ‘이유’를 들어 ‘剪成短發’라는 요구를 한다. 이에 安妮는 ‘不’, ‘我不想’이라는 두 번의 직접적인 거절을 하고 뒤이어 ‘只想燙’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덧붙임으로써 거절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두 화자의 발화에 뒤이은 이유 ‘短發精神’, ‘只想燙一下’는 각각, 요구에 의해 그리고 거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체면위협행위 정도를 낮춤으로써 麗莎와 安妮의 적극적인 체면을 상호 보상하고 있다.

(14) 2.12.3(음료 전문점에서)

……

麗 莎: 那種深咖啡色的是甚麼飲料?

售貨員: 那是酸梅湯。

麗 莎: 我以前沒見過。

售貨員: 這是中國的傳統飲料, 可好喝了! 要不要嘗一嘗?

麗 莎: 下次吧。

예(14)에서 타국 음료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麗莎에게 售貨員은 ‘要不要’으로써 요청을 수행하고 있다. ‘要不要’와 같은 정반의문문 형식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화자가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한 화자가 매상을 올려야 하는 점원이라는 점, 그러므로 화행의 동기가 본질적으로 청자의 기호 이해에 있지 않다는 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麗莎는, ‘要’일 경우 ‘拿一杯’와 같이 구체적 실제 행위에 대한 후속발화의 부담을 갖는다는 점에서 요구—한 번 드셔보세요—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자는 ‘下次’로써 ‘거절’을 수행하고 있는데 ‘要不要’ 중의 선택으로서 ‘不要’로 거절할 수 있음에도 ‘의례적인’—정말 ‘다음번’을 보장하지 않는—거절 형식으로 간접적인 거절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음료를 소개한 점원의 적극적인 체면위협을 최소화하고 있다.

(15) 2.12.2(과일가게에서)

杰 夫: 小姐, 蘋果多少錢一公斤?

售貨員: 七塊。

麗 莎: 我覺得有點兒貴。

杰 夫: 便宜點兒吧。六塊怎麼樣?

售貨員: 我們這兒不講價, 這蘋果又大又甜, 真的不貴。

杰 夫: 好吧, 我買一公斤。

.....

예(15)에서 杰夫는 ‘便宜點兒’로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지만 售貨員은 ‘我們這兒不講價’로써 ‘不行’이나 ‘不可以’처럼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동시에 매장의 표준을 제시하며 간접적인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便宜’라는 행위에 杰夫와 자신을 관여시키기 보다는 따라야할 기준—我們不講價—을 제시함으로써 售貨員은 ‘便宜’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관할영역 밖에 있음을 의미하여 杰夫의 체면위협을 최소화하고 감정적인 대응도 회피하고 있다. 뒤를 잇는 售貨員의 ‘這蘋果又大又甜, 真的不貴’ 역시, ‘便宜’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 반응이 아닌, ‘蘋果’가 갖는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杰夫가 갖는 전제—有點兒貴—를 우회적으로 부정하고 간접적인 거절에 기여한다.

(16) 3.8.1(광채청과 리사가 산책을 한다)

.....

方雪青: 還沒想好。你說呢?

麗莎: 買束花, 或者買個生日蛋糕, 都挺好的。

方雪青: 我姐姐已經說了, 她買花; 還有, 我媽媽不喜歡吃甜的。

麗莎: 那就買她最需要的東西。

지금까지의 거절은 ‘不’, ‘不用’, ‘下次’ 등을 단독으로 제시하거나 이들 항목의 뒤를 이어 체면위협 정도를 감소시키는 보조항목을 부가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예(16)에서 보이는 거절은 명시적인 거절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요구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두시킴으로써 명시적 항목에 의한 麗莎의 체면위협을 최소화하고 있다. 方雪青의 의견 제시 요구에 대해 麗莎는 ‘買花’와 ‘買蛋糕’를 제안하는데 ‘不行’으로 부정적 항목을 대두시키기 보다는 ‘姐姐已說買花’, ‘媽媽不喜歡蛋糕’로 각각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대두시킴으로써, 方雪青은 자신의 ‘거절’행위가 불가피한 체면위협 행위임을 보이고 있다.

(17) 3.7.3(상점 안에서)

.....

(애니가 탈의실로 간다.)

售貨員: (對麗莎說)小姐, 您不來一條嗎?

麗 莎: 價錢怎麼降這麼多呢?

售貨員: 小姐, 放心, 現在是換季降價, 質量一點兒問題也沒有。

安 妮: (從試衣間出來)小姐, 請給我拿三條, 一條黑的, 一條藍的, 一條咖啡的。

麗 莎: 你呀! 沒一條還不够? 我還是相信“一分錢一分貨”。

상대의 요구에 대해 청자는 직간접적으로 호불호를 보여주는데, 거절 시 사용되는 형식은 일반적으로 평서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문문 형식을 이용하여 거절의 근거를 상대방에게 되묻기도 한다. 예(17)에서 售貨員은 ‘不...嗎’의 반어법 형식으로 安妮에게 구매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安妮는 ‘不買’로써 직접적인 거절을 선택하거나 예(14)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간접적인 거절에 속하지만,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암시하고 동시에 售貨員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에 대해 售貨員은 ‘換季降價’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고 ‘質量一點兒問題也沒有’로써 ‘一分錢一分貨’라는 安妮의 믿음을 부정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安妮는 재차 거절한다. 상기 대화의 행위구조를 살펴보면 대화 단락 전체가 구매에 대한 ‘요구—거절’ 인접쌍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不來嗎—一分錢一分貨’라는 간접화행 연속체 속에 ‘爲甚麼降這麼多—換季降價’라는 연속체가 삽입된 구조인데, 이 때 삽입된 연속체 구조 속의 ‘換季降價’는 ‘품질에는 이상 없으니 걱정 말고 구입하시라’는 의미로서 ‘不來嗎’와 동일한 말 힘을 가지며 ‘爲甚麼降這麼多’는 ‘원가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므로 사지 않겠다’는 전체를 가짐으로써 ‘一分錢一分貨’와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반복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한다면 다음과 같다.

不來一條嗎	요구1
爲甚麼降這麼多	거절1
放心, 換季降價	요구1'
還是一分錢一分貨	거절1'

4) 지시화행과 사회행위

요구가 거절로 이어질 때 화자는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고 바람의 수용을 위해 재요구 또는 수정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거절이, 요구가 철회된다면 상관없지만, 재요구나 수정된 요구로 이어질 때 청자는 수용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거절을 재차 고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과로서, 화자와 청자는 ‘지시—대응’ 인접쌍을 통해 ‘주장하기’나 ‘설득하기’, ‘대안찾기’ 등을 성취한다.

(1) 조율하기

(18) 2.7.2(기숙사에서)

- 麗 莎: 安妮, 旅行回來了?好玩兒嗎?
 安 妮: 好玩兒極了。
 麗 莎: 累不累?
 安 妮: 有點兒累。
 麗 莎: 你還沒吃晚飯吧?走, 咱們吃飯去。
 安 妮: 我想先洗個澡, 再去吃飯。
 麗 莎: 好吧, 我等你。你得快一點, 食堂快關門了。

예(18)에서 쌍방은 ‘吃飯去’라는 행위에 대해 상호 의견조율의 모습을 보여준다. 麗莎가 먼저 ‘走, 咱們吃飯去’라는 제안을 하지만 安妮는 이에 조건적 수용방식으로 거절을 한다. 그러자 麗莎는 安妮의 조건을 수용한 뒤 약속 ‘我等你’와 충고 ‘你得快一點’로써 제안을 수정하며 쌍방의 바람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거절의 방식과 그에 이어지는

충고의 방식이다. 먼저 거절의 방식을 보면, 安妮는 麗莎가 요구한 동작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我現在不去’로써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洗澡—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가기는 하나 바로 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거절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첫째, 거절을 해도 상대방의 체면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麗莎는 앞서, 여행에서 돌아온 安妮를 환영하며 ‘你還沒吃晚飯吧’라는 호의를 바탕으로 제안을 수행하였다. 제안에서 麗莎는 ‘咱們’이라는 직시어로 安妮와 자신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安妮가 이 때 요구된 동작행위 자체를 거부한다면 화자의 적극적인 체면을 위협할 우려가 커진다. 또 安妮가 ‘先洗個澡, 再去吃飯’을 발화하기에 앞서 ‘我想’을 쓴 것은, ‘내 생각’임을 강조함으로써 의견의 충돌과정에서 자칫 일방적인 공표나 강요로 흐르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이견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我想’에 뒤이어 安妮는 麗莎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洗澡—를 드는데, 이는 화자의 요구—去吃飯—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화자의 적극적인 체면을 최대한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麗莎에게 후행행위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吃飯去’는 安妮와 麗莎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安妮의 선행조건인 ‘洗澡’를 麗莎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있는데, 여기서 安妮는 ‘等等’이나 ‘你先走’와 같은 麗莎의 다음 행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麗莎에게 후행화행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는 麗莎의 적극적인 체면을 다시 한 번 존중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麗莎로 하여금 ‘吃飯去’의 동반수행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수정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제안의 수정에 있어 麗莎는 제시된 충고 ‘你得快一點’의 근거를 ‘我很餓’, ‘你洗得很慢’ 등 화자나 청자 어느 한쪽에 두지 않고 외부 기준 ‘食堂關門’에 둠으로써 강요의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면서 安妮의 적극적인 체면은 보호해 주고, 나아가 ‘得’에 의한 강요의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

(2) 주장하기

(19) 3.7.2(상점 앞에서)

安 妮: 你看, 門口寫着“店內服裝全部八折”, 進去看看吧。

麗 莎: “便宜沒好貨, 好貨不便宜”。價錢降這麼多, 質量能好嗎?

安 妮: 看看又不要錢!

麗 莎: 那就進去看看吧。

예(19)에서 安妮는 디스카운트 광고를 보고 매장으로의 진입을 제안하지만 麗莎는 사회적 관념에 기댄 자신의 믿음 ‘便宜沒好貨, 好貨不便宜’을 바탕으로 거절한다. 이에 安妮는 재요구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의 근거를 ‘價錢’과 ‘質量’ 등 麗莎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부정하는데 두지 않고 ‘看看’이라는 자신의 요구확인과 그에 따른 사실—不要錢—제공에 둬으로써 결국 麗莎의 수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화행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요구1—거절1—요구1’—수용1’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행위 연속은 결과적으로 ‘주장하기’라는 행위 성취에 기여하고 있다.

(20) 3.10.3(애니와 제프가 무단 횡단을 했다)

.....

安 妮: 現在正好是綠燈, 快過馬路!

杰 夫: 來不及了, 已經變黃燈了。

安 妮: 沒事兒, 咱們可以過去!

杰 夫: 不行!

安 妮: 你真麻煩。

.....

주장의 예는 화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청자에 의해서도 성취된다. 예(20)은 安妮가 杰夫的 자전거 뒤에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安妮는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임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건널 것을 요구하는데 杰夫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절한다. 이에 安妮는 동일 내용으로 재요구를 하

는데 杰夫 역시 그에 대해 거절을 반복하고 있다. 쌍방 간의 대화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평행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安妮는 요구의 정도가 낮아지고 杰夫는 거절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安妮와 杰夫는 같은 상황을 각각 다르게 대함으로써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녹색 신호가 바뀔 것 같은 언저리를 安妮는 ‘正好’의 예처럼 적시로 받아들인 반면 杰夫는 ‘來不及’, ‘已經’으로써 적시가 지났다고 보았다. 이에 安妮는 ‘快過’로 직접적인 ‘요구’를 한 반면, 杰夫는 직접적인 거절방식의 채택을 회피하는 대신 거절의 이유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체면위협을 보상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노란색으로의 상황변화는 화자의 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는데, 安妮의 ‘快過’가 ‘可以過去’로 변한 반면 杰夫의 ‘來不及’는 ‘不行’으로 강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중 杰夫의 거절방식은 보상행위로만 구성된 간접적 거절에서 보상행위 없는 직접적인 거절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你真麻煩’이라는 ‘평가’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상기 대화가 마치 수평적 이견을 보일 것만 같아도, ‘요구1—거절1—요구1’—거절1’의 행위결과가 ‘주장하기’를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3.5.3(리우 웨이의 집에서 30분 후)

.....

劉 偉: 你說床靠着窗戶好, 還是不靠着好?

王 平: 還是別靠了, 床靠着窗戶, 你每次開, 關窗戶都得上床, 多不方便!

劉 偉: 可這樣房間好像小了一點兒。

王 平: 要那麼大的地方有甚麼用? 你想在家裏開舞會嗎?

예(21)에서 劉偉가 ‘질문’으로 침대를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묻자 王平은 ‘別靠窗戶’로써 이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다. 여기서 劉偉는 선택의문문 형식으로 두 가지 선택항—‘靠窗戶好’, ‘不靠窗戶好’—을 제시하고 있는데, 王平은 이 중 하나의 항을 선택하지만 제시된 평서문의 형식을 따르기보다는 명령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지시화행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王平은 요구된 행동에 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며 지시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劉偉는 이에 대해 ‘好像小’로써 자신의 느낌에 기대어 거절하고 있다. 이에 王平은 다시 ‘有甚麼用’을 이용한 반어법으로 ‘不用大的地方’을 피력하며 劉偉의 의견을 반박하고 지시의 합리화를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 연속은 ‘주장하기’이라는 행위의 성취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화행의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1
 대답1 =요구1
 거절1
 반박 =요구1’

(3) 설득하기

(22) 3.9.1(토요일, 제프가 리사와 마주쳤다)

杰 夫: 麗莎, 好久不見, 去哪兒啊?
 麗 莎: 去書店看看, 買點兒書。
 杰 夫: 買甚麼呀, 想看甚麼書, 到圖書館去借, 多方便。
 麗 莎: 圖書館新書太少, 而且常常借不着。我最喜歡逛書店了, 逛書店的感覺可好了。
 杰 夫: 改天再去吧。
 麗 莎: 怎麼?
 杰 夫: 你看今天天氣這麼好, 還不如找幾個朋友去劃船呢。
 麗 莎: 這個……
 杰 夫: 哎, 我正看着一本新書, 你一定喜歡。
 麗 莎: 甚麼書? 借我看看吧。
 杰 夫: 你得先答應我, 和我們一起去劃船。
 麗 莎: 好吧, 我答應你。快告訴我, 甚麼書?

예(22)에서 杰夫는 서점에 가는 麗莎에게 책을 구매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라고 충고하지만 麗莎는 도서관의 현실 ‘新書少也借不着’와 자신의

기호 ‘喜歡逛書店’을 들어 간접적인 거절을 수행한다. 뒤이어 杰夫는 즉흥적인 요구 ‘改天再去吧’를 수행하는데, 麗莎는 요구에 대한 대응보다 대응을 위한 근거, 즉 화자의 의도를 궁금해 하며 질문 ‘怎麼’를 수행한다. 이에 대해 杰夫는 날씨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不如’를 이용하여 ‘去書店’이 잠재적으로 ‘去劃船’보다 못한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요구 ‘改天再去’의 수행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杰夫가 ‘요구’와 지시사 ‘你’ 그리고 부정(不定) 대명사 ‘幾’를 통해 麗莎를 어떻게 포함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杰夫는 ‘改天再去’의 행위대상을 麗莎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뒤이어 ‘你看’을 통해서도 麗莎를 끌어들이므로써, 麗莎로 하여금 杰夫와 날씨라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이로 미루어, 杰夫는 공유된 날씨 환경 속에서 麗莎에게 동일 행동을 암암리에 촉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촉구는 ‘找’의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분명해진다. ‘還不如找幾個朋友去劃船呢’에 비교 대상인 ‘去書店買書’를 부가한 뒤 동사만을 추려보면 ‘去…買…不如找…去劃…’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삼아, 다시 ‘改天再去’를 부가한다면 ‘改天去, (因爲)去…買…不如找…去劃…’와 같은 동작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그다음 각 동작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관찰해보면, ‘不如’ 앞의 ‘去’와 ‘買’는 명백한 麗莎의 행위이지만 ‘不如’ 뒤의 ‘找’는 杰夫가 제안한 杰夫와 麗莎의 공동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화자가 ‘幾’에 청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你改天再去, (因爲)我找幾個朋友去劃船’로 설정할 경우 집을 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처럼 ‘나 먼저 놀러 갔다 올 테니 넌 다음에 가’의 의미로 해석되고, 반대로, ‘你改天再去, (因爲)你找幾個朋友去劃船’로 설정할 경우 ‘볼 일은 나중에 보고 내 대신 친구들과 함께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你改天再去, (因爲)我們找幾個朋友去劃船’의 설정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杰夫는 麗莎를 애초부터 ‘幾’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找’의 공동 행위자로 설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요구—공동의 상황(날씨)공유—공동 행위 촉구’라는, 일련의 요구 연속체를 구성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강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麗莎는 ‘這個…’를 이용하여 주저함으로 보이

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麗莎의 거절 의사에 대해 杰夫는 포기하지 않고 재요구를 하는데, 그에 앞서 杰夫는 麗莎가 좋아하는 ‘新書’를 설득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좀 더 정교한 재요구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麗莎는 ‘借我看看’이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에 杰夫는 麗莎에게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자신의 선행요구를 먼저 수용하라—你得先答應我—며 재요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麗莎는 杰夫의 요구를 수용하고 ‘借我看看’에 앞선 질문 ‘甚麼書’를 재차 수행한다. 논의를 종합하면, 상기 대화는 ‘요구1—거절1—요구2—질문1—대답1—거절2—요구3—수용3’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시—대응’쌍을 이용한 조율을 통해 ‘一起去劃船’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 ‘설득하기’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4) 대안찾기

(23) 3.8.2~3(다음날 옷 가게에서)

方雪青: 您好。

售貨員: 您好。小姐要買甚麼?

方雪青: 我不是買東西, 我有件事要麻煩您。

售貨員: 甚麼事? 請說吧。

方雪青: 這是我昨天在這兒買的毛衣, 想給我媽媽做生日禮物, 可是回去讓她一試, 有點兒瘦, 我想換一件肥一點兒的, 行嗎?

售貨員: 您有小票嗎? 粉色的。

方雪青: 有, 在這兒呢。

售貨員: 好° 這種毛衣賣得特別快, 不知道還有肥點兒沒有, 您等一下, 我去看看。

(점원이 한참을 찾다가)

售貨員: 真對不起, 小姐, 沒有肥的了。您看看別的吧。

方雪青: 這怎麼辦呢? 我媽媽特別喜歡這件毛衣的顏色和式樣。

售貨員: 您母親甚麼時候過生日?

方雪青: 明天。

售貨員: 您看這樣行不行, 請您把電話號碼給我, 我們去想辦法, 一有消息就和您聯系。

方雪青: 那太好了, 我真不知道該怎麼謝您了。

售貨員: 沒甚麼。

요구에 이은 수용/거절이든 거절에 이은 재요구이든 모두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구와 수용/거절의 수행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보다는 오히려 결과로서의 행위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23)에서 方雪青은 어머니께 생선선물로 사드린 옷이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러 왔다. 옷 중에서도 특히 스웨터는 입어보고 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입어본 뒤에는 교환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요구하는 손님에게도 응대하는 점원에게도 옷 교환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方雪青은 교환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에 앞서 예비요청—我有件事要麻煩您—을 통해 요구의 시행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고 있다. 예비요청에 대한 긍정적 결과는 方雪青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요구행위로의 이행을 추동한다.

方雪青은, 예(4)에서 처럼, ‘我想’이라는 평서문 형식의 바람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청자인 售貨員에게 ‘요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손님과 점원이라는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라는 목적 하에서는, ‘주문’이나 ‘구매’처럼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수용이나 거절의 주도권을 점원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요구하게 된 사정을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함으로써 점원으로 부터의 수월한 수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售貨員은 뒤이어 ‘您有小票嗎? 粉色的一有, 在這兒呢’라는 ‘요구—수용’쌍의 삽입을 유도함으로써 方雪青이 교환에 적합한 조건—영수증 소지 유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서야 요구를 수용한다. 그러나 잠시 후, 교환에 대한 점원의 수용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售貨員은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을 유도—您看看別的—하지만 方雪青은 ‘怎麼辦’으로써 거절한 뒤 거절의 이유를 부연하고 있다. 거절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어머니에게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처럼 거절의 근거를 현재의 발화자 밖에 둬으로써 方

雪靑은 거절로 인한 점원의 체면 위협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역으로, 교환이라는 맥락을 감안할 때 자신의 요구 정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 효과는 이후 이어지는 점원의 제안 ‘您看這樣行不行’을 끌어냄으로써 결국 동일상품 교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상기 예는 ‘요구1—요구2—수용2—수용1—요구3—거절3—요구4—수용4’의 행위구조를 가짐으로써 교환이라는 목적 달성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객관적인 돌발 상황에 맞선 ‘대안 찾기’를 성취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중국어 교재의 대화문에서 보이는 지시화행과 ‘지시—대응’쌍을 중심으로, 의미해석은 맥락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순차성에 의한 선후 화행 간의 연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아울러 ‘지시’와 ‘거절’은 본질적으로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화자의 전략에 따라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며 위협의 최소화를 위해 부가적인 성분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보았다. 나아가 지시화행은 일개 단위로서 인접쌍의 구성요소로 기능하고 이렇게 구성된 ‘지시—대응’ 인접쌍은 다시 기타 ‘지시—대응’ 인접쌍과 결합하여 ‘설득하기’, ‘주장하기’ 등 특정 사회행위를 성취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화행기반의 교재분석 결과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 어떠한 함축을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화행의 해석과정은 일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간접화행에 대해 의미해석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추차적 이해로부터 벗어나 동일한 형태의 다양한 기능, 다양한 형태의 동일한 기능 등, 사용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변이의 모습으로 언어가 존재함을 인식함으로써 어법기반의 말하기 교육이 아닌 행위기반의 말하기 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단어에서 구로, 구에서 절이나 문장으로 이어지는 층차적 분석과 결합은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며 예(22)처럼 어법단위가 화행의 해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화 구조에 대한 관찰은 화행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 연습에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흔히 교재 속 대화문을 학습할 때 학습자들은 단어나 문장을 외우려고만 할 뿐 문장이 배치된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대상으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하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적 개념이 더 우선시되는데, 이와 같은 개념 차를 극복하는데 있어 인접쌍을 토대로 한 대화구조의 분석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7)을 예로 들면, 대화문 학습 시 대화내용과 더불어 ‘요구—질문1—대답1—질문2—대답2—대응’이라는 대화구조를 함께 제시한다. 우선은 대화문에 대한 이해와 개인적 연습시간을 부여하고 뒤이어 텍스트를 가리고 연습할 때 ‘종업원의 주문요구에 원하는 정보를 탐색한 뒤 주문하라’는 임무를 준다면 학습자들은 대화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어휘’를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 노력할 것이다. ‘그게 뭐였지’하며 한 자가 생각이 안 나 걸려 있는 문장 전체를 함구하기보다 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지’로 시각의 전환을 피하며 목적의 수행을 위해 기억 못하는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직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구조의 수정 및 확장을 시도한다면 학습자들이 문장이해에만 몰두하거나 문장만을 먼저 암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언어내용의 암기에서 벗어나 언어를 이용한 행위 수행이라는 개념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 행위 성취에 대한 관찰은 수업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23)을 예로 들면, ‘대안 찾기’는 비단 물건교환에만 국한된 행위는 아닐 것이다. 물건교환과 대안의 모색은 오히려, 소풍 장소 모색, 행사 준비 방법, 주거지 임대 계약 등 이권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보다 직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대화문에서는 재고의 부족이라는 장애물을 잘 극복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수업 시 ‘학교 행사의 준비’라는 주제를 제시한 뒤 ‘이권이 발생할 때 말로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타

학우와 풀어가면서 ‘대안 찾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설득’, ‘주장’, ‘거부’, ‘조율’ 등 기타 행위들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라는 성취목표를 설정하려면 교수자는 대화상황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는 부여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어진 행위 성취를 위한 의지가 밀바탕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그동안 간과되었거나 막연하게 설정되곤 했던 소풍, 행사, 임대 등의 주제는 ‘대안 찾기’라는 특정 행위의 틀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세부성취 목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행위 성취를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면서 목표 성취를 위한 전략 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다.

넷째, 화행 자체가 상대의 실제 반응을 기대하며 행한 행위라는 점은 대화 연습이 없어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수용과 거절을 살피고 지시한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어떻게 신체적 동작으로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며, 또 역으로, 상대방의 지시에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케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은 ‘하는 것’임을 환기시킬 수 있다. 예(4)에서 보인 손님의 ‘(對售貨員)小姐, 我想看一下那件衣服, 可以試試嗎?’와 뒤를 잇는 점원의 ‘可以 那邊有鏡子’는 지시와 수용이라는 일련의 행위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행위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동반되어야 할 몇 가지 언어 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손님은 ‘小姐’라는 호칭에 맞는 시선의 처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那件’에 맞는 직시적 행위—손이나 턱, 또는 시선으로 대상을 지칭하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那件’이기 때문에 점원은 ‘可以’의 발화와 동시에 대상을 운반하는 신체동작이 있어야 하며 ‘那邊’이기 때문에 손님과 점원이 처한 지역을 제외한 제3의 지역을 가리키는 동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 행위를 발화와 더불어 구사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매장이라는 공간이 ‘想看’이라는 바람의 표현만으로도 지시의 힘을 갖는다는 점, 지시화행에 대한 언어적 무반응이 행동이라는 반응으로 대체됨으로써 무반응 자체가 곧 거절로 해석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호칭과 직시어 등의 언어항목은 반드시 시선이나 신체적 행동을 동반해야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훈련의 적절한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교

수법의 일환인 역할극이나 즉흥극 등을 들 수 있는데, 극의 활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교수자의 통제 수준을 조절해가며 한국 그리고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미래 처하게 될 상황 공간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말뿐만이 아닌 시선과 제스처, 억양 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발화 이외의 행위가 상호작용에 있어 발화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학습자로 하여금 체득케 하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Littlewood 1981[안미란 2007])

주제어

지시화행, 인접쌍, 공손성, 중국어 교재, 중국어 말하기

❖ 참 고 문 헌

- 강소영(2004), 「중국어의 화행별 공손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표현 대조분석—TV 드라마의 대화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41, pp.173~192
- 김정은(2007),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요청 표현 분석」; 『중어중문학』 41, pp.167~191
- 박용익(2003), 『수업대화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 서울: 역락
- 박용익(2001), 『대화분석론』, 서울: 역락
- 박찬욱(2010), 「대화분석과 중국어 교재분석—말하기 교재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41집, pp.281~313
- 양은미(2011), 「화행」; 『영어교육을 위한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pp.109~160
- Brown, Penelope, Stephen C.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mmings, Louise(2010), *The Pragmatics Encyclopedia*, NY: Routledge
- Huang, Yan(200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이혜윤 역(2009), 『화용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익환, 권경원 공역(2003),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 Littlewood, William(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안미란 역(2007), 의사소통적 교수법, 서울: 한국문화사]
- Schegloff, Emanuel A., Harvey Sacks(1973), Openning up closings; *Semotica* VIII(4), pp.289~327
- Searle, John R.(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shana Blum-Kulka, Juliane House, Gabriele. Kasper(1989), The CCSARP Coding Manual;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pp.273~294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2009), 『漢語口語』(1), 서울: 동양북스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2010), 『漢語口語』(2), 서울: 동양북스
- 戴桂芙, 劉立新, 李海燕 편저(2010), 『漢語口語』(3), 서울: 동양북스
- 劉虹(2004), 『會話結構分析』, 北京: 大學出版社
- 索振羽 编著(2000), 『語用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ABSTRACT

Some suggestions for teaching Chinese speaking
from the pragmatic perspective:
Focused on *directives* in the Chinese textbooks

Park, Chan Wook

This paper aims to examine *directives* and its adjacency pair *directives—responses* in the Chinese textbook *Hanyu Kouyu* from the speech act theory, and give some suggestions for Chinese speaking instruction.

For analysis of *directiv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context surrounding it at first. Context includes space for speaking, person who speak with, adjacent speech act, etc., so this paper considers context firstly before explaining *directives* and discusses how each element of context effects interpretation of its meaning. From the politeness perspective, *directives* and *rejection* as one of the responses are easy to be FTAs(face-threatening acts) fundamentally, so they are required to have some strategies for minimizing the threat, and it is found that there are strategies for positive face and negative face in the textbook. In the textbook, it is also examined that *directives—responses* contribute for interlocutor to accomplish social acts, for example, negotiating, insisting, maintaining, making alternative ideas, etc.

Keywords

directives, adjacency pairs, politeness, Chinese textbook, Chinese speaking

논문접수일: 2012. 05. 10

심사완료일: 2012. 06. 11

게재확정일: 2012. 06. 15